

최근 환율동향과 전망

(2014.5.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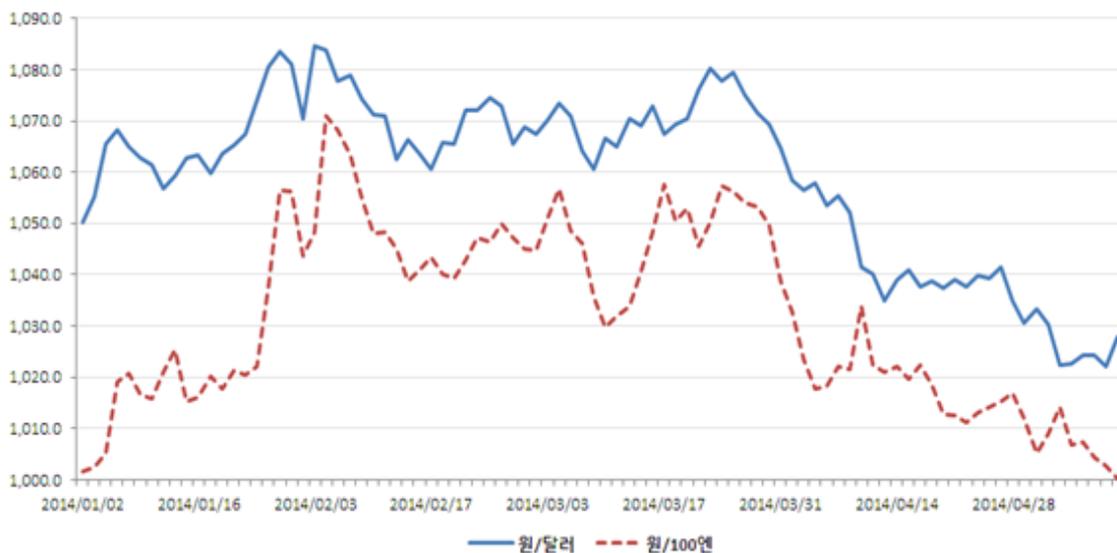
BS금융경영연구소

환율동향

- 3월 하순 이후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급속히 하락
 - 원/달러 환율(종가)은 3월 21일 1,080.3원에서 5월 13일 1,022.1원으로 하락 (3월 21일 대비 5.4% 하락)
 - 5월 14일에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전일대비 5.8원 상승하여 1,027.9원으로 마감
- 원/엔 환율도 3월 24일 1,057.3원에서 5월 14일 1,000.4원으로 동 기간중 5.4% 하락

원/달러, 원/엔 환율 추이

(원/달러, 원/100엔)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최근 환율하락 요인

-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(tapering) 이후 신흥국 중 경상수지 흑자국인 한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금의 선호도 증대
 - 2014.1.1~5.8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액은 -0.8조원, 2014.1.1~5.7 중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순유입액은 +2.3조원
- 미국 및 유로경제 호전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 확대 예상
-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축소
 -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후 현 기준금리(2.5%)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

향후 전망

-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최근들어 원/달러 환율 전망을 종전보다 낮추고 있음
 - 예를 들어 Goldman Sachs의 경우 원화환율 전망을 4월 10일 3개월 1,080원, 6개월 1,080원, 12개월 1,100원에서 5월 2일 각각 1,010원, 1,050원, 1,070원으로 하향 조정
- 특히 BNP Paribas 및 Goldman Sachs에서는 단기적으로(3개월) 원/달러 환율이 1,01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
 - 그러나 2014. 4/4분기 환율의 경우 1,000~1,050원으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

□ 이를 종합해 보면 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원/달러 환율이 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상승도 예상

* 원/달러 환율 상승 요인

- ①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 및 테이퍼링 지속으로 미 달러화의 강세 예상
- ② 원화 강세 지속으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우려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
- ③ 베이비부머(baby boomer) 세대의 은퇴 지속으로 높은 수익률을 겨냥한 해외 증권투자 수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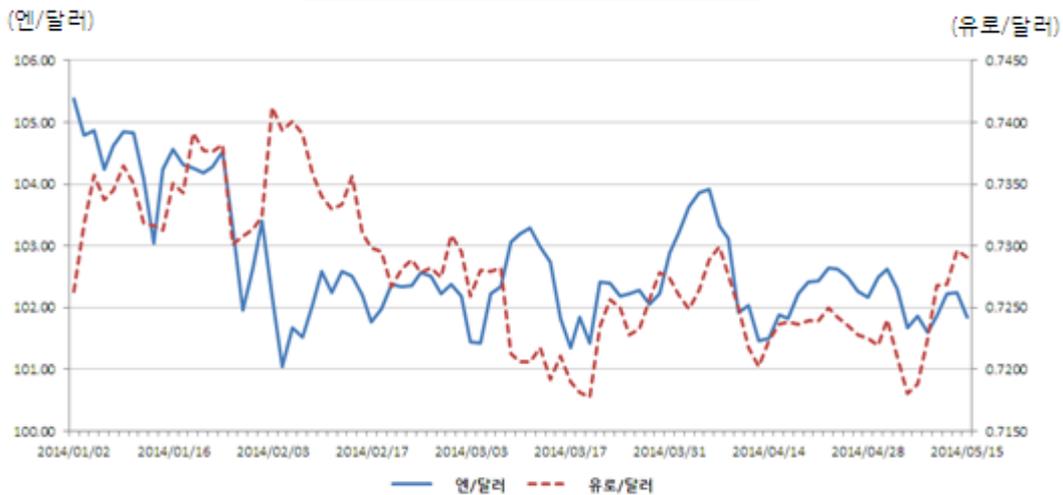
□ 한편 엔화는 미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 원/엔 환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

주요 투자은행의 엔/달러 환율 전망(5월 9일 기준)

	3개월	6개월	9개월	12개월
평균	104.46	106.58	109.00	109.92
최고	110	112	115	120
최저	100	102	101	99

자료: 국제금융센터

엔/달러, 유로/달러 환율 추이



(작성자: 염지연 대리)